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輿地圖書』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Nationwide Gazetteer

Yŏjjidosŏ in the Reign of King Yŏngjo

- The Production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a Gazetteer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late Chosŏn Dynasty -

정 대 영 (Jung, Da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輿地圖書』의 서지적 분석 | <참고문헌> |
| 3. 『輿地圖書』의 제작경위 | |

<초 록>

이 연구는 영조연간에 제작된 전국지리지 『輿地圖書』 55책에 대한 서지적 분석이다. 조선후기, 특히 숙종연간 이후부터 고종의 재위기간까지 조선에서는 방대한 분량의 관찬 전국지리지를 제작하였다. 현재 여러 기관에 散逸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해당 시대를 연구 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사료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지리지의 목록이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지리지가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관찬지리지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여지도서』를 중심으로 제작과정과 본문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현존본 『여지도서』는 徐命膺의 소장본으로 판단되나 그 전래과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2. 『여지도서』 본문의 항목을 비교해 보면, 道 단위로 일정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제작과정에 있어 중앙-지방, 지방-지방 사이의 갈등이 있었음이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입장이 현재의 『여지도서』에 반영되어 있다.
4. 기존 『동국여지승람』과는 다르게 전국통계자료의 파악을 위해 진행된 일련의 사업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는 조세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要語: 『輿地圖書』, 官撰地理志, 邑誌, 邑誌上送令, 英祖, 大同法, 邑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knuegoolbi@naver.com)

접수일: 2016년 12월 7일 최초심사일: 2016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26일

<ABSTRACT>

This study is a bibliographic analysis of *Yŏjidosŏ* (輿地圖書), a nationwide gazetteer comprising 55 volumes, which is considered to have been produced between 1757 and 1761,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The central Chosŏn government produced a vast number of nationwide gazetteers, especially during from the later years of the reigns of King Sukchong (1674–1720) to King Kojong (1863–1907). These volumes, which have been scattered to various institutions, are essential for the study of the Chosŏn era. However, to date, a detailed list of local gazetteers has not been built, and it thus remains difficult to discuss why and how local gazetteers were produced. This paper examines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and production processes of *Yŏjidosŏ*, which scholars consider a turning point in the centralization of nationwide gazetteer production. This study confirms the following facts:

1. *Yŏjidosŏ* is considered to be from the collection of Sŏ Myŏngŭng (徐命膺, 1716–1787), but further research on the process of its introduction is required.
2.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in the book reveals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provinces, especially regarding Kyŏngsang province.
3. Historical records allow to discover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power and between local power themselves in the production of local gazetteers, *Yŏjidosŏ* reflects these characteristics.
4. Unlike in the production of *Tonggukyŏjisŭngnam* (東國輿地勝覽), the most famous nationwide gazetteer produced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the government conducted a series of projects to gather national statistical data before producing nationwide gazetteers in the late Chosŏn,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Yŏngjo.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scholars to understand the processes underlying the production of gazetteers along with changes in the tax system.

Key words: *Yŏjidosŏ*, Chosŏn Gazetteers, Local gazetteers,
Submission order of gazetteers in the Chosŏn Dynasty,
King Yŏngjo, Taedongbŏp (tax reform policy in the Chosŏn Dynasty),
Ŭpch'ong (local statistical data in gazetteers)

1. 머리말

이 글은 18~19세기까지 조선 중앙정부에 의해 제작된 전국단위 지리지에 대한 연구의 일부이다. 肅宗의 후반기를 제외한다면, 英祖, 正祖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1700년대는 이전 왕대와는 대별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확인되는데, 그 가운데서 필자는 전국지리지와 전국지도 제작에 주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숙종연간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일련의 편찬사업은, 영조연간에 이르러서 55冊의 『輿地圖書』, 8冊 130장 분량의 『海東地圖』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英祖가 진행한 일련의 사업은 正祖에 의해 계승되고 구체화 되었다. 正祖의 『群書標記』에 기록된 ‘60冊’ 분량의 『海東輿地通載』와 같은 방대한 지리지는 현재 일부 殘本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자료의 不在는 그동안 영조-정조로 이어지는 지리지 제작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또한 전국 360여 郡縣 및 驛, 鎭 등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편찬체제를 내려 보내 收束, 제작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지리지에 대한 서지적 분석으로서는 이해에 한계가 있음이 자명하다. 특정 시기의 현상에 대해 그 어떤 구조를 상정하고 이해하려 한다면, 그 주변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부의 가까운 사례로는 英祖와 正祖연간에 제작된 수많은 지방지도와 통계자료부터 시작하여, 왕권의 강화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혁과 사회의 변화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상태에서만이 전국지리지 제작이라는 현상을 시공간의 좌표 속에 배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

지리지의 제작이라는 것은 일견 단순한 지방의 기록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지리지라는 거대한 사료군에 대해 관심이 적어 보이

1)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賦役實總』(1794), 『良役實摠』(1748), 『戶口總數』(1789)와 같은 통계자료, 『邑事例』, 『邑摠』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당대 지방 郡縣 단위의 內規, ‘重記’ 자료를 통한 지역의 자료 소장 상황과 담당자 확인가능성, 현재 소수의 사료에서 남아있는 당대 읍지제작에 대한 牒報자료, 金錫胄, 崔錫鼎, 洪良浩, 趙鎭宅, 申景濬 등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한 관료들의 기록, 이에 대비되어 지리지 제작을 각 지역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여 기록하고 있는 黃胤錫, 具尙德, 權相一 등을 비롯한 이들의 일기와 관련자들의 문집기록 등.

며, 이에 어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혹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리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일련의 학자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리지 연구는 1987년²⁾ 이후 답보상태에 있어 왔으며, 개별 사료에 수록된 몇몇 특정 항목들만이 관련 연구자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리지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무슨 연구방법론과 활용의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부수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일 著書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자료별로 파편화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현재 1,000여 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방에 대한 기록인 지리지 혹은 邑誌는 중국사를 연구하는 서양학자들에 의해 최근 들어 많은 연구 방법론이 개발 중에 있다.³⁾ 이 가운데서도 필자는 2015년에 출간된 조셉 테니스(Joseph Dennis)의 책에서 지리지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이 책의 주된 주제는, 公的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중앙의 지리지와 지역의 위상을 위해 제작되는 方志 간에 복잡한 권력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조선의 지리지 제작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부분으로, 서적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문화사의 측면으로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 1878-1956)의 『책의 탄생』⁵⁾에서 바라보는 관점과도 상통되는 부분이다.

2) 지리지에 대한 최초이자 종합적인 연구로서는 유일한 박사논문인 양보경 교수의 학위연도를 말한다(70년대 김전배 등의 논문과 2000년대 들어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서적에 대한 몇몇 논문이 있으나 단일 지리지에 대한 연구이거나 연구의 접근방법이 지리지를 수단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3) Bol, Peter K., "The Rise of Local History: History, Geography, and Culture in Southern Song and Yuan Wuzhou."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61(1)(2001), 37-76.
; Brook, Timothy, "Native Identity under Alien Rule: Local Gazetteers of the Yuan Dynasty," *Pragmatic Literacy East and West, 1200-1330* (Rochester, NY, USA: Boydell Press, 1997). ; Will, Pierre-Etienne, *Chinese Local Gazetteers: An Historical and Practical Introduction* (Paris: Centre de Recherches et de documentation sur la Chine contemporaine, 1992).

4) Joseph Dennis, *Writing, Publishing, and Reading Local Gazetteers in Imperial China, 1100-1700* (Harvard East Asian Monographs 379)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5) 루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저, 강주현 외 1명 역, 『책의 탄생(책은 어떻게 지식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서적에 대한 내용, 형태적인 분석과 제작과정에 대한 단편적이 사료를 간략히 정리해 본 것이다. 영조-정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리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이자 시발점이 된 『輿地圖書』가 바로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2016년 현재 2년 여간 자료의 열람신청이 거절되고 있어, 영인본과 일부 인터넷상의 이미지로 자료의 분석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은 이 글의 한계점이라고 하겠다.



<그림 1> 『여지도서』 원본(좌), 『여지도서』 국역본 50권(우)

1973년 3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용산구 삼각지 이태원성당에 위치한 ‘교회사연구소’의 ‘최석우신부’ 소장서적 가운데서 1760년 경(英祖 36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輿地圖書』 55冊 全帙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⁶⁾ 이 자료의 가치는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바이지만, 최초 발견 당시 이에 대한 김전배(당시 문화재관리국 藏書閣사무소장)의 인터뷰는 자료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邑誌는 前期는 世宗實錄地理志, 中期는 東國輿地勝覽, 後期는 輿地圖書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계에서 지난 수년동안 찾고있던 輿地圖書 全帙 55冊이 발견되었다니 기쁨을 무어라 형용키 어렵다.”⁷⁾

혁명과 사상의 전파를 이끌었는가)』 (과주: 돌베개, 2014).

- 6) 경향신문, 1973년 3월 22일자 1면, “李朝의 邑誌 한눈에 輿地圖書55冊 全帙발견”. ; 동아일보, 1973년 3월 22일자 7면, “李朝邑誌총정리 당시國勢한눈에 輿地圖書전집55책 發見”.
- 7) 경향신문, 1973년 3월 23일자 4면, “李朝 地方行政史 등 集大成된 資料”.

김전배는 한국에서 읍지와 지리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한 최초의 학자로 기억되고 있다.⁸⁾ 이러한 자료의 발견은 당시 지리지의 연구사에 있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사료였던 것이다. 이후 동년 12월에는 300부 한정판으로 상·하 책으로 영인된 축쇄본 『輿地圖書』가 발간되었으며, 1979년에는 보급판으로 다시 복간되어 학계에 널리 배포되게 되었다.⁹⁾ 2009년에는 전주대학교 학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50권으로 된 『국역 여지도서』가 간행되어 관련 연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¹⁰⁾

하지만 『輿地圖書』가 가지는 사료적 중요성에 비해 수단으로서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제외한다면, 지리지 자체에 대한 연구는 선행들의 몇몇 성과가 주축이 된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점이다. 사료에 대한 활용은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輿地圖書』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최영희(1973)¹¹⁾, 양보경(1987,¹²⁾ 1993¹³⁾), 배우성(1995¹⁴⁾, 1996¹⁵⁾)의 글이 가장 깊이 있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리고 『輿地圖書』에 수록된 312매의 읍지도에 대해서는 노희방(1980)¹⁶⁾과 양윤정(2013)¹⁷⁾이 각기 서지적 분석과 지도사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현재 영인본 여지도서에는 흑백으로 윤곽선만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2009년에 완역된 국역본에서도 수록된 지도는 영인본의 자료에 색을 입힌 것으로 원본

8) 김전배, “朝鮮朝의 邑誌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 1972).

9)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3). ;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9).

10) 변주승 등 역주, 『국역 여지도서 1-50』 (서울: 디자인하름, 2009).

11)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3), 3-13. 여지도서 해제.

12)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7), 100-109.

13) 양보경, “18세기 조선의 자화상 『여지도서』,” 『토지연구』 5·6월호(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131-137.

14) 배우성, “영조조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81집(1995).

15)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85집(1996), 148-160. 輿地圖書 부분.

16)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980), 10-1.

17) 양윤정,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호(2013).

을 수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본의 실사가 수반되지 못하는 자료의 연구는 그 가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여지도서를 연구하면서 서지학자로서 그간 가져오고 있었던 제작경위와 현존본의 전래에 대한 경로의 분석, 그리고 조선전기부터 光武연간까지 이어졌던 邑誌上送令의 실체에 대한 약간의 연구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세 학자의 연구성과가 분명 탁월한 바가 있으나, 2016년 현재에는 그 당시에 비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해졌기에 새롭게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료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지도서에 대한 연구는 2009년 완역서의 출간을 전후로 하여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번역에 참여한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각 항목들에 대한 계량적 분석들이 주를 차지한다. 본 글에서 살펴볼 여지도서 자체에 대한 연구성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73년 최영희의 해제가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이 글은 이후 여지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제를 겸한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1. 여지도서가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eenne)의 초판본에는 없었으나 1896년에서 1901년 사이의 수집본을 대상으로 한 ‘보유편’에서는 제8대 조선교구장인 뮌텔 주교(1854~1933)의 소장본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 2. 承政院日記의 기사를 바탕으로 1750년을 전후하여 3차례의 여지도서 개정작업이 있었다는 것. 3. 弘文館의 前例에 따라 發關儒生인 李潑에게 分兒된 1帙의 여지도서가 徐命膺의 가장으로 내려오다가 뮌텔을 거쳐 현재 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것이라는 추정. 4. 현존 여지도서가 結冊으로는 완질이나 내용상 落帙이며 30여 개 군현의 자료가 없다는 사실의 언급이다.

양보경의 1987년 박사논문은 지리지와 읍지에 있어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는데, 본문에서는 최영희의 해제 이후로 輿地圖書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전체의 읍지제작 흐름 속에서 여지도서의 위상을 평가하고 있다. 이후 동일필자가 1993년에 발표한 글

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보완된 형태의 내용으로 제작과정과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배우성은 영조연간의 지리지와 지도에 대한 제작과정에 대해 다양한 사료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1995년의 연구에서는 비변사인 지도 및 해동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영조연간의 지도제작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 바 있으며, 1996년의 글에서는 18세기의 전국지리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여지도서의 제작과정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연구가 중앙정부의 기록(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주 사료로 삼았다면, 배우성은 당시의 지리지제작을 지방의 기록(오산문첩, 이재난고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야기되는 ‘邑誌上送令’의 실체를 좀 더 심화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여지도서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는 한동안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6년에 변주승¹⁸⁾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여지도서를 번역하면서 그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저술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 발표된 김진우의 연구¹⁹⁾는 한 지역(해미)의 특정 항목(‘성곽’)을 통하여 여지도서에 수록된 본문의 내용이 후대의 읍지에 어떻게 반영되고 변화되었는가를 校勘작업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서, 여지도서의 내용이 고종연간의 읍지까지 거의 유사한 형태로 轉寫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⁰⁾

양윤정의 2013년 연구²¹⁾는 英祖연간에 제작된 ‘비변사인 1리 방안지도’와 ‘해동지도’를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와 비교함으로써 그 연관성을 분석한 지도학 분야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원본이 아닌 영인본의 비교라는

18) 변주승,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고려사학회, 2006).

19) 김진우, “여지도서 유형의 읍지를 통한 해미읍성의 문헌적 고찰 - 성곽과 성곽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9(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1).

20) 해당 논문의 pp.51-52.에서는 ‘여지도서->1845년 충청도읍지->1871년 호서읍지->해미읍지(규장각)->1872년지방지도->충청남도읍지->해미읍지(국립중앙도서관)->호서읍지2->충청도읍지2->증보문헌비고’의 순서로 변화되고 있는 ‘성곽’ 항목을 교감하여 분석하고 있다.

21) 양윤정,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점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교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같은 해에 발표된 양진석의 연구²²⁾는 비록 여지도서의 제작과정을 다룬 것은 아니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逸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正祖연간의 관찬 전국지리지인 60冊 『海東輿地通載』의 제작과정을 관련 사료를 통해 분석하고 목차를 재구성함으로써 여지도서의 제작과정을 유추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라 판단된다.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여지도서의 제작과정과 서지적 분석을 몇몇 오류의 수정과 새로 발굴된 자료들을 통해 재구성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輿地圖書』의 서지적 분석

여지도서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자료의 외적인 부분으로, 이 자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소장 경위에 대한 연구이다. 다음으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서지적 분석으로 내용의 구성과 형태적인 면에서의 특징 및 본문에서 각 지역별 구성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는 것이다. 여지도서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대부분이 역사학계에서 제작경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서지적 분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축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지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1973년 여지도서 영인본에 수록된 최영희의 해제에는 이 자료의 소장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輿地圖書는 현재 韓國敎會史研究所 收藏本으로 본래는 天主教 韓國敎區長 뮈텔(A. Mutel)의 수집문헌의 하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뮈텔주교는 쿠랑

22)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M. Courant)의 韓國書誌 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를 도왔는데, 1896년 간행된 쿠랑의 『韓國書誌(Bibliographie Coréenne)』에는 輿地圖書가 소개되지 않았으나 1899년에 간행된 『韓國書誌增補(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사이의 수집본으로 생각된다.”²³⁾

이 서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리스 쿠랑과 그의 저술인 『韓國書誌』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양에서 한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모리스 쿠랑은 서울주재 프랑스 대사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Victor Collin de Plancy, 1853~1922)의 書記官이 되어 13개월간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서 플랑시의 수집 고서에 대한 해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확대하여 1894년 제 1책을 간행하게 되었고, 이후 2책을 간행한 후 1901년 보유판을 작성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려 당시 프랑스인 및 독일인에 의해 수집된 한국고서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해제를 작성하게 되었다.²⁴⁾ 최영희의 해제가 발표될 당시에는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가 내용이 방대하며, 프랑스어인 관계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문만이 번역된 상태에 있었다.²⁵⁾ 이후 1994년에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서지학자인 이희재에 의해 보유판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완역이 이루어졌다.²⁶⁾ 따라서 프랑스어 원문을 분석하여야 했던 1973년 당시보다 자료의 접근도가 향상된 바가 있다 하겠다. 쿠랑의 한국서지 보유편에 3642번 항목에는 여지도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다.

23)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한국사료총서 20)』(규장문화사, 1979), 3.

24)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 제작과 본문에 수록된 한국본 고지도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이전 글이 약간의 내용을 다룬 바 있다(정대영,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eénne에서 나타나는 고지도 자료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1호(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1)).

25) • 일본어 번역본: 淺見倫太郎 譯, 『朝鮮藝文志』(朝鮮總督府, 1912); 小倉親雄 譯, “朝鮮書誌序論,” 『讀書』 2, 3號(1938).

• 영문 번역본: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trans. By Mrs W. Massy Royds, in Transactions of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V (1936), 1-99.

• 한국어 번역본: 김수경 譯, 『朝鮮文化史序說』(서울: 凡章閣, 1946).; 박상규 譯, 『韓國의 書誌와 文化』(親丘文化社, 1974).

26) 모리스 쿠랑 원저 이희재 번역, 『韓國書誌』(일조각, 1994).

“보유권-6부 史書部-4장 地理類 > 3642번. 輿地圖書 55책. 4절판. 필사본. 상세히 검토할 수 없었던 이 저술은 앞의 것(동국여지승람을 말함: 필자주)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총 60책, 2책은 지도, 연대는 1760년이라는 점은 확인되었다. n°2228, (2)를 재판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²⁷⁾

3642. 輿地圖書

Ye ti to sye. — Géographie.

55 vol. in-4°, manuscrit.

Cet ouvrage, que l'on n'a pu examiner en détail, est analogue au précédent. Toutefois on affirmait qu'il comprend 60 vol.; une carte du 2^e vol. porte la date de 1760; ce serait peut-être une refonte du 2228, II.

<그림 2> 1899년 발간된 『韓國書誌』 보유편 원문의 해당 부분²⁸⁾

이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리스 꾸랑은 대부분의 책에 소장자의 이니셜을 표기하였는데, 이 책에는 책의 소장자가 뮈텔주교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뮈텔주교가 꾸랑과 많은 서신을 통해 교류한 바 있고, 55책으로 ‘輿地圖書’의 서명을 가지며 1760년에 제작된 지리지는 사실상 현존하는 교회사연구소의 여지도서임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과연 이 자료가 뮈텔의 소장본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자료에 대해 모리스 꾸랑이 ‘총 60책이며 2책은 지도’라고 한 점인데, 이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꾸랑은 앞의 책 즉,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책으로 인식한 듯한데, 문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이 55권 55책이라는 점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5책이 더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물론 현재 여지도서에는 39개의 邑誌와 6개의 營誌 그리고 최소 46면의 지도가 누락되어 있긴 하지만, 5책이 더 있었다는 언급은 단순한 오판일 수도 있으나 여지도서

27) 모리스 꾸랑 저 이희재 역, 『韓國書誌』 (일조각, 1997), 829-830.

28) Maurice Courant, *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Jusqu'en, 1899), 55.

의 잔편으로 추정되는 읍지를 실사한 바 있다는 양보경의 언급 등을 볼 때는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²⁹⁾

세 번째 사실은 이 자료가 1896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1896-1899년 사이에 뫼텔주교로 추정되는 서양의 소장자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사실이다. 뫼텔주교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걸치는 43년간 한국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1890년 8월 4일부터 1933년 1월 14일까지 방대한 분량의 일기를 남겨놓은바 있다. 이 일기에 대해서는 바로 여지도서의 소장자로 알려져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최석우 신부의 주도로 1984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2008년에 완역이 되어 공개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1890년대부터 1900년까지 가능성이 있는 연대의 일기를 살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여지도서 혹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³⁰⁾ 다만 뫼텔주교의 일기에서는 구한말 여러 고관대신 및 부호들이 선물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뫼텔이 당시의 고서상에게서 이 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면 전자의 인물들에게 선물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선학들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 關文을 내렸던 發關儒生인 李潑이 弘文館의 前例에 따라 1절은 조정에 올리고 한 부는 分兒³¹⁾하여 李潑에게 갔으며, 이는 이후 아래에서 담당자였던 徐命膺이 얻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선학들 역시 이를 식언치 않게 여긴 것처럼, 필자 또한 의문이 드는 부분으로 남는다. 어째서 현존 여지도서에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藏書印 혹은 藏書記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현존 여지도서는 金尙魯나 洪啓禧의 이름에 둘레를 쳐서 이름을 빼는 것으로 교정 표시를 본 부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정황상 최소 홍계희가 삭탈관직 당하는 1777년 이후의 정황이 반영된 것이며 정조연간에 結冊된 정황이 파악되는데, 어째서 서명용은 이 자료를 結冊하지 않고 보관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³²⁾ 과연 達城徐氏의 문중에서 이 책을

29) 양보경(1993), 134. 각주 13번 참조.

30) 뫼텔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뫼텔 주교 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31) 分兒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같은 말] 分下, 벼슬아치들에게 年例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주던 일.

보관하였는가 하는 점은 관련 자료가 없는 이상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있다. 이 역시 원본의 실사를 한 이후에 좀 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의문이 되는 조선시대 ‘分兒’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관련 연구성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례가 진정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습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2질을 제작한 전국지리지 가운데 한 질을 담당자에게 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일로 보인다. 하지만 『승정원일기』에는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에 사료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으나 해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 있다.³³⁾

다음으로는 내용상의 분석을 소략하게나마 진행해 보도록 하겠다. 여지도서의 내용이 전국을 수록한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이 자료가 처음부터 불완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후대에 일부가 缺落된 것인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최영희는 해제에서 매우 유의미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원본을 실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32) 최승희(1973), 11. 앞의 해제. “종합해 보면, 이 여지도서를 結冊한 연대는 영조 40년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책한 연대는 훨씬 하대에 보존상 결책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의상 全 55冊한 것으로 생각된다.” ;

양보경(1993), 134. “(생략) 따라서 현전 『輿地圖書』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제책이 된 것은 훨씬 후대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읍지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결여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상태로 지속된 상태에서 책으로 묶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33) 『承政院日記』, 1765년(영조 41년) 12월 8일(기유), 원본1250책/탈초본70책(12/12) 전체 101건 중 12번째 기사.

“○乙酉十二月初八日二更, 上御思賢閣。副提學入侍時, 副提學徐命膺, 右副承旨李瀾, 假注書趙貞相, 記事官安聖彬・鄭來謙, 以次進伏訖。…(중략)… 命膺曰, 最初洪良漢, 爲玉堂時陳達, 八道邑誌, 修正以上, 此則有印本有寫本矣。其後金應淳, 爲玉堂時, 陳達改修正, 而李瀾, 爲玉堂時, 行關於八道, 故臣於其時, 添刪國錄, 定爲凡例, 下送於行關時, 本館古例, 發關儒臣, 每以一件分兒, 故其輿地圖書二本上來, 一本內入, 一本分兒於李瀾, 故臣得之矣。上曰, 輿地圖書, 卿所名乎? 命膺曰, 然矣。上命注書出問于弘文館, 輿地圖書一件在本館與否知入。臣貞相奉命, 出問于弘文館, 則只有邑誌, 而輿地圖書, 則不在本館之由仰奏訖。仍以次退出。”

“충청도 監營誌의 表紙 裏面에 ‘溫陽, 定山, 淸安三邑邑誌不來 更詳之’의 附箋이 붙어 있는 바 이는 읍지수취 당시의 충청도는 3읍지가 아직 상송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요한 지적으로 보인다. 다만 후대의 학자 가운데 원본을 실사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기에 논의를 더 진행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위의 서지적 언급은 여지도서에서 충청도 지역의 결락된 읍지와 정확히 합치되는 것이다. 현재 1750년대 당시의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여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의 읍지가 누락되어 있다.

<표 1> 『輿地圖書』에서 각 道별로 누락된 읍지 목록³⁴⁾

지역	누락지역	계
京畿道	漢城府, 開城留, 監營, 兵營, 坡州牧, 高陽郡, 積城縣, 水原郡, 安城郡, 陽川縣, 金浦郡	11
忠淸道	定山縣, 溫陽郡, 淸安縣	3
江原道	없음	0
黃海道	없음	0
平安道	없음	0
咸鏡道	없음	0
慶尙道	蔚山郡, 梁山郡, 永川郡, 興海君, 泗川縣, 三嘉縣, 宜寧縣, 河東都, 山陰縣, 安陰縣, 丹城縣	11
全羅道	監營, 兵營, 左水營, 右水營, 南原都, 潭陽都, 全州府, 益山郡, 金堤郡, 古阜郡, 錦山郡, 珍山郡, 萬頃縣, 臨陂縣, 金溝縣, 井邑縣, 礪山都, 濟州牧, 旌義縣, 大靜縣	20
	총계	45 (邑誌 39, 營誌 6)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여지도서에 수록된 313개 邑誌에 대한 항목을 엑셀로 정리하여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은 다루지 않았기에 이를 통해 새로운 경향성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邑誌上送令’이 있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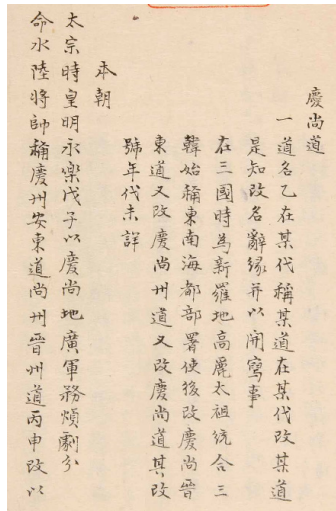
34) 최승희(1973), 앞의 해제에 수록된 표에서 수정 후 인용.

대전제 하에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많은 해제와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읍지나 지도(특히 1872년 지방지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중앙에서 각 감영으로 關文을 내려 上送을 하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졌으며, 文書의 行移체제와 각 감영에서 또 다시 하위 군현으로의 명령 전달 및 수합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실상 필자가 진행 중인 박사논문의 큰 주제이기도 한데, 최근 이에 대한 몇몇 문서의 형태가 일기류에서 확인되고 있기에 조금씩 그 실체에 접근이 가능할 듯 보인다.

여하간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지리지 제작에 대한 명령을 하달할 시에, ‘見樣’이라고 불리는 샘플 사례를 작성하여 내려 보냈으며, 각 항목별로 지침을 하달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이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료는 1425년(世宗 7)에 작성된 『新撰八道地理志』의 일부인 『慶尙道地理志』(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청구기호: 奎1007)의 序文에 실린 凡例이다. 이러한 범례의 설정은 조선시대 최후의 전국지리지로 알려진 1899년(光武 3)의 지리지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³⁵⁾³⁶⁾

35) 지리지 제작에 있어서 凡例를 작성하는 것은 고대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통일된 항목의 지리지 제작을 통한 지역관리를 위해서도 제작의 범례를 작성하여 이른바 ‘見樣’을 지방에 하달하여 동일한 항목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리지를 제작하도록 요구하였다. 중국의 지리지 제작의 경우 필자의 견문이 더욱 부족하기에 凡例에 대한 詔勅은 세 가지 사례만을 확인하였다① 1418년 永樂16년에 詔로서 반포된 纂修志書凡例, ② 1690년 康熙二十九年河南巡撫通飭修志牌照, ③ 1875년 光緒部頒鄉土志例目節錄).

36) 이러한 ‘邑誌上送令’과 ‘見樣’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더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비단 읍지제작의 일단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 문성행정과 중앙-지방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읍지 그 자체에 대한 연구나 수단으로서의 활용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고문서학적인 방법이 투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필자가 1899년 ‘邑誌上送令’을 고찰해본 바 있다(정대영,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2011)). 또한 다음의 연구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김태웅, “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규장각』 43(2013).



<그림 3> 1425년 제작된 규장각 소장 『慶尙道地理志』
(古 94790-39, 원본의 傳寫本)의 卷首에 수록된 작성지침(見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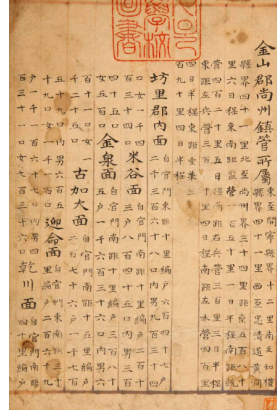
각 지역의 항목을 분석해 보면, 일괄적인 통일성이 보이고 있으며, 각 지역에 하달된 ‘見樣’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여지도서의 항목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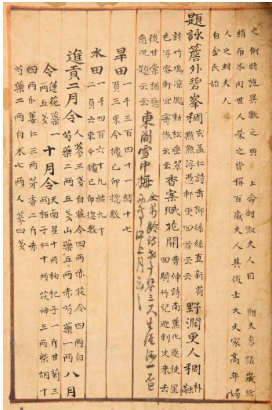
채색지도	지역개관	재정, 군사관련
1.地圖	2.坊里 3.道路 3.建置沿革 4.郡名 4.形勝 5.城池 6.官職 7.山川 7.姓氏 8.風俗 9.壇廟 10.公廨 11.堤堰 12.倉庫 13.物產 14.橋梁 15.驛院 16.牧場 17.關隘 18.烽燧 19.樓亭 20.寺刹 21.古蹟 22.鎮堡 23.人物	24.旱田 25.水田 26.進貢 27.糶糴 28.田稅 29.大同 30.均稅 31.俸廩 32.軍兵
313개 행정구역 중 312매 수록	일반적인 지리지의 체제와 동일 특징: ① 坊里와 鎭管소속 및 거리가 권수에 기록 ② 人物항목이 크게 축소 ③ 題詠항목의 삭제(慶尙道에만 존재)	관찬지리지에서 재정, 군사 항목의 강화, 조선초기 지리지에서 등장하던 항목이 더욱 체계화 되어 전국에서 동일하게 작성됨 • 특징: 본문에서 1행을 내려 구분하여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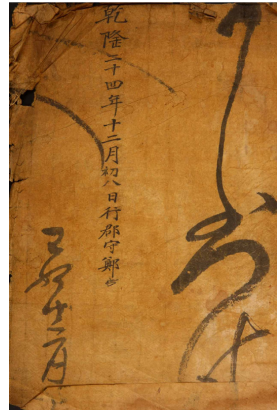
채색 읍지도



坊里 앞에 기록되는 鎭管소속과 거리여부



‘지역개관’ 이후 기록되는 재정



乾隆24년(1759)의 군수의 署押³⁷⁾

<그림 4> 『여지도서』의 구성 사례(규장각 소장 경상도 김산군(현 김천)읍지³⁸⁾)

- 37) 이러한 郡守의 署押은 이 자료가 원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단순한 추정뿐만이 아니라, 여지도서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하나의 ‘成冊古文書’로 인식되어 발급자-수취자의 관계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지방 수령의 上送에 대한 본문말의 기록은 1899년 읍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 38) 이 자료는 여지도서에 정식으로 실린 자료가 아닌, 1759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의 자료이다. 하지만, 여지도서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조 연간의 산재하여 전래되는 일부 지리지와 여지도서의 대조작업이

<표 3> 각 항목의 중요 내용 - 『여지도서』의 김산군읍지³⁹⁾

[진관소속관련]

尙州鎭管 金山郡東至開寧界十五里南至知禮界四十一里西至忠淸道黃澗界四十一里北至尙州界三十四里距京五百八十里六日程東南距監營一百五十里一日半程南距統營四百二十里五日程南距兵營三百里三日半程⁴⁰⁾

[재정 군사관련]

旱田 二千二百三十七結四十四負三束內各樣免稅陳頭竝九百十五結七十五負一束己卯時起一千三百四十一結十七負三束

水田 二千三百五十八結四十八負七束內各樣免稅陳頭竝八百九十六結五十八負九束己卯時起一千四百六十九結九十二負六束

進貢 人蔘 白茯苓 赤茯苓 白芍藥 山藥 赤芍藥 蓮花藥 天南星 枸杞子 甘菊 栢子仁 茯神 柴胡 瓜蒌仁 茅香 白術

糶糴 元會米四千四百六十石四斗七刀八合一夕雜穀二百五十九石九斗九刀六合九夕賑色米七百三十七石九刀四夕雜穀七十三石三斗一刀六合五夕常平廳米七百六十七石十一斗六台七夕雜穀三百五十九石二斗七刀三合七夕私賑雜穀三百八十五石八刀二合九夕別會米一萬三千五石八斗九刀四合二夕雜穀一萬六百六十二石五斗二刀一合九月開倉十二月封庫己卯條爲准

田稅 作木五十九同三十疋二十二尺二月收捧三月以陸路七日達于京納于戶曹己卯條爲准

大同 作木七十五同錢布參半田稅一時收捧上納惠廳米五百七十三石十斗五刀四合六夕儲置本郡一從惠廳區劃多寡無常己卯條爲准

均稅 田稅條木一同十九疋大同條木二同十三疋九尺八十結錢一千五百九十七兩七錢六分田稅一時收捧上納還武布一同四十疋十月收捧以陸路七日達于京納于均役廳己卯條爲准

俸廩 衙祿位四十結粘米八石白米八石公須位十五結粘米三石白米三石官需米三百石民結所出每夫雉一首鷄一首柴二十四束炭二斗藁草八同生草八同式捧用

軍兵 訓練都監砲保一百五十五名御營正軍一百二十七名資保一百三十六名官保二百五十四名禁衛正軍一百三十五名資保一百四十四名官保二百五十四名兵曹騎兵二百六十七名步兵三百四十八名禁軍保三十二名扈輦隊保二名樂工保十六名校書館匠人一百十七名水軍一百十八名保三十名武學一百十三名射夫四十八名差備軍二名牙兵一名炭匠二十五名東伍馬軍七十五名保一百十名步軍七百七十二名金烏鎭步軍四百二十九名烽燧軍二百名

이러한 체제의 순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순서의 선후가 바뀌거나, 항목의 이름이 다른 경우⁴¹⁾ 정도만이 확인될 뿐이다. 일부

필요한 부분이다(1759년 경상도 김산군(현재 김천) 金山郡邑誌 想白古 915.15-G336).

39) 위 그림의 규장각소장 김산군읍지와 여지도서의 김산군읍지는 몇몇 수치상의 차이가 발견된다.

40) 여지도서의 원문텍스트 정보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http://db.history.go.kr>>.

지역에서는 牧場, 關隘와 같이 지역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항목을 써주고 하단에 ‘無’라고 기록해 주어 항목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題詠’ 항목이다. 英陽, 清河, 昌寧의 세 고을을 제외하면 경상도의 모든 읍지에서는 이 ‘題詠’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경상도를 제외하면 여지도서 전체에서 ‘題詠’을 기재한 경우는 경기도의 永宗防營, 衿川縣, 麻田郡, 楊根郡, 砥平縣, 陽智 고을뿐으로 확인된다. 이는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정황상 해석을 해 보자면 ‘題詠’은 본래 關文의 명령서에는 없던 것으로 해당 고을에서 임의로 넣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해당 읍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면, 경상도의 경우 상급관청인 監營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항목이 수정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가 여지도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조선 전체의 지리지 발달사의 과정 가운데 그 의의를 부여한다면 첫 번째는 해당 고을의 읍지도를 기재한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200여 년간 유지되었던 『新增東國輿地勝覽』(이후 승람)의 체제에 변화를 가한 점이라는 사실이다. 후자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된 점이 없지 않았는데, 필자는 여지도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러한 특징에 있다고 생각한다. 임란 이후 지식인들은 지리지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승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南宋 祝穆(?-1255)의 『方輿勝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승람은 자연적으로 詩文이 다수 수록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재 지리적 사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였다. 승람에 수록된 3천여 수의 시문은 이후 하나의 권위로 작용하였기에, 매번 새로운 지리지를 만들 때마다 어떠한 시문을 뺄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도 정작 누구의 시문도 제외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늘기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여지도서에서는 과감하게 詩文과 題詠을 없애고 국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요 항목(특히 坊里(戶口포함), 道路, 旱田-水田-進貢-糶糴-田稅-大同-均稅-俸廩-軍兵)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를 지리지를 바라보는 지식인들의 또 다른 인식은 지역과 家門의 宣揚을 위해 지리지를 적극 활용하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로 갈수

41) 예를 들어 驛院을 撥站이라 한대거나 寺刹을 佛宇로 쓰는 따위이다.

록 지역의 사찬지리지는 人物과 詩文이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조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영조연간의 여지도서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일소하고자 이 항목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던 모양이나, 경상도는 끝내 題詠 항목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자가 최근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는 1838년경 洪義浩의 本子인 洪義祖(洪仁浩에게 入後됨)가 쓴 것으로 판단되는 『杞人間商量』에 따르면, 조선후기 관찬지리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작자에게 人物과 題詠 항목의 제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를 느끼게 해 주고 있다.

“‘題詠’은 지리지에서 뺄 수 없는 것이나 또한 폐단이 있는 항목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대체로 『東文選』을 함하여 만들었기에 詩文의 거의 대부분과 高麗, 朝鮮 초의 뛰어난 문장이 수집되어 암송되고 전해지지 않음이 없었는데, 이는 너무 시문을 숭상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리지 자체의) 기재 부분이 많이 소략해져 체제에 흠이 되었다. 이후로 300년간 詩文으로 이름난 자들이 부지기수이며, 팔도강산에 있는 樓臺의 처마와 대들보를 뒤덮고 있는 것도 모두 詩文懸板이다. 원고를 목판으로 印出한 것이 한우충동이 될 만큼 많은 것이 또한 詩文이다. 지금 시문을 갖추어 수록하고자 한다면 장차 남산의 대나무를 다 써도 부족할까 두려울 정도이다. 만약 그 시문을 골라서 편찬하려 한다면 그 누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선별할 것이며, 그 누가 후에 있을 비방을 책임질 것인가? 나는 말하기를, “지금의 지리지 편수작업은 온전히 지리적 사실만을 숭상하여 작성하며, 단지 山川, 道路 위의 실상만을 기재하겠다!” 라고 할 것이다. (지리지는) 본래부터 시문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 (후략)”⁴²⁾

다음으로 내용상에 분석해 볼 부분은 본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新增’, ‘舊增’과 같은 기록이다. 배우성은 기존연구에서 이를 3차례에 걸친 영조연간의 수정작업을 통한 기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곳곳에서 이러한 ‘新增’, ‘舊增’ 등의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목상 ‘旱田’ 이후의

42) 洪義祖, 『杞人間商量』.

“題詠, 爲誌之不可闕, 而亦且有弊《勝覽》則, 蓋以《東文選》合成故詩文居半, 前朝 國初之高文秀什, 非不可誦、可傳, 而是乃專尙詩文而作故記載, 反多疏畧, 稍欠誌體矣. 伊來三百年間, 以詩文爲名家大方者, 不知其幾, 江山樓臺蔽櫟盈楣者題板也. 棗梨巾衍, 汗牛充棟者詩文也. 今欲俱收并載則, 其將罄南山之竹, 而恐未盡也. 如其抄撰則, 誰有高眼, 孰任其謗, 余以謂 “今之修誌專尙地理而作, 只取山川、道里上從實記載!” 本不關於詩文之有無.”

내용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방에서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旱田’->‘軍兵’에 이르는 항목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寫字官에 의해 正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전라도에 속하는 모든 읍지에서는 ‘新增’, ‘舊增’의 항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경상도와 마찬가지로 道 단위로 독립적으로 작성이 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아닐까 보인다.

또한 여지도서의 ‘風俗’ 항목을 보면 ‘觀風案’을 참조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 관풍안은 이전 수령들의 명단이라는 설도 있고 각 지방의 풍속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기도 한다. 金誠一도 관풍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金休의 『海東文獻總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풍속’ 항목도 관풍안을 참조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관풍안’에 대한 언급은 총 35차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33번은 경상도의 각 군·현의 ‘風俗’ 항목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 될 것이다. 또한 나머지 두 번은 전라도 金堤郡과 漢城府로 이 두 지역의 ‘관풍안’ 인용은 ‘풍속’이 아닌 다른 항목이다. 경상도만의 특징일 수 있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3. 『輿地圖書』의 제작경위

『輿地圖書』라는 책이 왜 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 논의의 시공간을 확대하여, 그렇다면 왜 영조는 1757, 1759, 1775년에 연이어 전국적인 지리지의 제작을 진행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상, 전체를 포괄하는 설명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 이유가 궁극하였기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확정적인 추론은 불가하겠지만 일말의 개연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특정 시기의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항시 변화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 장에서는 현재의 상황

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몇몇 흐름에 대해 서술하였다.

시작에 앞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념 명확화’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지리지’, ‘읍지’, 혹은 중국에서 지칭되는 ‘方志’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또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만약 후자에 해당된다면, 상호간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호보완되는 관계인지, 혹은 상하의 계층관계를 가지는 어휘인지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면서도 지리지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라 생각된다. 실상 저 세 단어는 구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고, ‘지리지’의 ‘지’라는 글자를 ‘志’로 쓸 것인지 혹은 ‘誌’로 쓰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듯하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필자 자신도 정확하게 각 단어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관련 분야를 연구하면서 이해되는 약간의 사실관계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잠시 지리지라는 것에 대한 조셉 테니스의 설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local gazetteer’나 ‘local history’로 번역되는, 地方志라 지칭하는 중국어 저술 장르에 대한 연구이다. 앞의 두 번역어 모두 지방지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필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local gazetteer’를 이 책에서 사용하기로 하겠다. 지방지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책으로 간행된 지역 구성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으로, 주제별로 나열해 보자면 예컨대, 자연지형, 학교기관, 인구, 조세, 인물 그리고 문학 작품을 들 수 있겠다. 중국제국은 이미 예전부터 지역 구성요소와 지방지의 위계질서를 정해 놓은 상태였다. 명 제국(1368-1644)에 시기에 최하단위는 縣의 지방지였다. 그 위로는 州와 府의 지방지, 省의 지방지, 그리고 피라미드의 최정상에는 제국 전체의 지방지가 있었다. 더 작은 단위나 특별한 행정구역, 예를 들어 마을, 초소, 국경검문소, 그리고 학교나 사원과 같은 기관에서도 역시 지방지를 간행했었다.

사전편집자들은 이러한 장르의 기원을 각 지역에서 지도와 지리적 정보를 중앙 정부로 제출하게 하였던 주나라(周, 기원전 1045-256경)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13세기에는, 지방지가 현재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지리, 역사, 문학과 지방기록을 혼합하는 범주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지방지는 역사와는 달리 각 제국들을 초월하는 (통시적인) 기록인데 비해, 역사는 개별 제국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지가 땅(land)에 관련된 기록이었던 것에 비해, 역사는 지배자(ruler)와 연관되는 것이다. (중략)

지방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음에도, 다루고 있는 질문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지방지에 있는 다수의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가 1980, 90년대에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 진행되었지만, 그러한 학문분야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뛰어난 역사학자들은 지방지에서 발견한 내용 분류에 대해 탐구하기도 하였으나, 사회사, 법제사 혹은 경제사의 측면에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피터 볼(Peter Bol),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 그리고 피에르-에티엔 윌이 지방지에 대한 중요한 글을 쓴 바 있다. (중략)

이러한 학문간의 격차는 일정부분 학문별 경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문학 연구자들은 지방지를 중요한 문학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중국사 연구자들은 지방지라는 책 장르 문제에 대해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아왔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지 전체보다는, 수록된 개별 기록이나 항목들에 대한 분석으로 이 자료를 이용해 왔다. (중략)

지리지를 연구대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서, 연구자들은 지리지 각 항목에 존재하는 중국 지방 사회, 가족생활, 지방정부, 조세, 인쇄, 문학 그리고 책의 문화사에 대한 접근의 잠재성을 놓치고 말아왔다. (중략)

이 책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중국 지리지란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중화제국의 후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지리지는 가장 방대하며, 내용적으로 풍부한 역사 사료이며, 때로는 중앙 지역의 바깥에 놓인 지방에 대한 최고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일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순히 보이기도 한다. 가령 “지리지는 개별 항목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편집한 해당 지역에 대한 사료의 모음이다.”와 같은 대답 말이다. 하지만, 지리지는 자료에 대해 연구를 접근해 볼수록, 이 자료가 복합적인 텍스트라는 것은 명백해 진다. 지리지는 중앙과 지방의 지식인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장소이자, 사회적 계급과 부의 분배를 위해 투쟁하는 전장으로, 여론과 논의를 형성해 가는 토론장,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담당했다. 지리지의 제작, 유통, 독서, 활용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역사적 질문들을 다음 단계의 통찰로 이어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핵심이 되는 질문은 세 가지 주제와 관련이 된다. 첫째, 중화제국 후기 지식의 생산과 보급, 둘째, 중심과 주변 모두에서 지방사회와 중앙 정부의 관계, 셋째, ‘인쇄 산업’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필자는 지리지가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사이의 연결점이었으며, 지방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정부로 다시 보내졌건, 수도에 남아있던 간에- 중앙 관청으로 전하는 주된 운반수단이었다고 주장한다. 지리지는 지역의 정보를 지역과 그 외의 독자, 중앙집권화와 우수한 문화를 위해 지역의 정보를 엮은 작가들에게 유통되었으며, 지역문화 생산에 중요한 장이었다. (중략)

피터 볼에 따르면, 地方史의 발흥은 중국의 문화 엘리트들이 그들 자신과 국가에 대해 가져왔던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宋代 지식인들이 국가를 (이전보다) 덜 제국적이며, 긍정문화에 비친화적이고, 덜 중앙집권화된 것으로 재개념화를 시작한 신호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⁴³⁾

43) Joseph Dennis(2015), 2-5.

긴 인용문을 통해, 2015년 당시 서양의 중국학자들이 이해하는 지리지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地理志’, ‘邑誌’, ‘方志’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자.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地理志’라는 단어는 班固의 『漢書』에서 최초로 등장한 지역에 대한 ‘志’에서 시작된다. 물론 그 이전에서 지리지에 해당하는 저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반고의 한서 지리지에서는 특정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紀傳體 역사서의 특정 항목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후 지리지의 제작은 紀傳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항목이 되고 있으며, 이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제작하는 전국지리지(일명 一統志)와 지방의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지리지로 분화된다. 피터 볼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지역에서 지리지를 제작하면서 지역의 역사(history)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려 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여기서 등장하는 ‘方志’라는 단어가 바로 ‘지방(方)에 대한 紀傳體식의 志를 포괄한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수록된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그러하다. 즉, ‘方志’라는 단어는 지역의 모든 항목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정형화된 지리지와는 다른 내용과 구성을 가지게 된다. 이 저술은 ‘지역성의 강조’,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리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청나라 건가시기에 戴震과 章學誠에 의해 하나의 학문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장학성에 의한 ‘方志學’의 창시는 지리지를 역사서의 범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지리지의 시작은 국가의 公的인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중앙의 공적인 지리지와 지방에서 제작되는 지역을 대변하는 성격의 지리지로 분화된 것이다.

관찬지리지와 사찬지리지의 분화는 실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나, 필자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이에 대한 깊은 논의의 저술을 접하지 못하였다. 이는 조선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현재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조선초기 勳舊派와 士林派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리지를 제작하여 지역성을 강화시켜 왔다는 사실은 그다지 주목을 많이 하지 않았던 듯하다. 1400년대 초에는

국가에 의해 신찬팔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지리지와 같은 전국단위의 지리지 제작되었고, 특히 팔도지리지와 동문선을 결합하여 東國輿地勝覽을 제작하였다. 하지만 동국여지승람이 제작되기 이전에 이미 金宗直이 1477년(성종 8)에 『善山地圖誌』, 『地理圖十絶』을 작성하였던 사실이 간과되었다. 또한 壬辰倭亂이 전인 1500년대 후반부터는 경상도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리지를 제작하는 일련의 學派가 존재하였음도 역시 주목할 사안이라 하겠다. 鄭述(1543-1620)와 그의 제자들에 의한 지역단위의 지리지제작은 19세기까지 이어지는 지리지제작에 대한 조선만의 학문체계를 형성하였다. 다만, 그들이 남긴 지리지에 비해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저술은 부족한 실정이다.⁴⁴⁾

전국 360여 군현에 동일한 명령을 關文으로 내려 자료를 수합하고 지역 監營에서 정리하여 중앙에 올려 편찬하는 시스템은, 일견 戶籍의 작성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지리지의 항목에는 지역의 위상 혹은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수많은 다툼과 재수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영조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 파악을 위해 지도(海東地圖, 규장각 소장)와 일련의 지리지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영조 역시 최종결과물을 간행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다만 東國文獻備考에는 申景濬이 작성한 輿地考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없이 지리적인 사실만을 나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지도서의 제작경위에 있어서는 배우성이 기존연구에서 큰 흐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연구를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여지도서의 제작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⁵⁾

1. 1757년(영조 33) 홍양한의 발의에 의해 군현지도가 첨부된 읍지가 각 군현에서 수합되기 시작하였다. (戊寅本)
2. 필사본과 인쇄본이 섞여 있는 각 지역의 戊寅本 읍지는 弘文館을 거치면서 ‘여지도서’라는 제목으로 왕에게 올려졌다.

44) 이에 대해서는 정대영, “『杞人間商量』 - 19세기 초 洪義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문화』 제72호(2015. 12), 467-508 참조.

45) 배우성(1996), 157.

3. 그러나 홍문관에서는 1759년(영조 35)에 항목과 지침을 수정하여 재차 읍지를 편찬해 올리라는 관문을 내렸고, 이 관문에 의해 각 군현에서는 지도와 함께 어람용, 감영보관용, 홍문관용의 3종류의 읍지를 작성하였다.
4. 홍문관에서는 각 군현으로부터 올라온 어람용과 홍문관용의 2본 가운데 어람용을 ‘여지도서’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올렸다.
5. 1765년(영조 35)의 관문에 의해 홍문관용으로 올라온 각 군현의 읍지(군현지도 포함)를 묶은 것이었다.
6. 서명용으로부터 ‘여지도서’를 받아본 영조는 홍문관에 다른 여지도서가 있는지를 문의하였지만, 홍문관에는 각 군현의 읍지만이 있을 뿐 ‘여지도서’는 소장되어 있지 않았다. 영조는 홍문관에 명하여 輿地圖書을 印刊하여 올리고 각 도의 읍지가 있는 것을 모두 모아서 올리도록 하였다.

필자의 능력으로는 현재 이 결론에서 크게 진전된 논의를 추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다만 각 과정에 대해 추가 발견된 사료의 언급과 기존까지 확인된 여지도서의 제작에 대한 사료를 ‘중앙정부-지방’으로 나누어 도식화한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표 4> 사료에서 등장하는 『輿地圖書』 제작 관련 기록의 분석(중앙정부-지방)

시기	관련 사료	
	중앙정부	지방
1754년	12월 3일- 英祖가 成川, 平壤에 邑誌가 있는지를 묻고 徐命臣에게 기타 읍지를 弘文館에 들어라고 명함. ⁴⁶⁾	
1757년	6월 29일- 英祖가 각 邑에서 印出한 邑誌 가운데 이전 수령(前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들어라고 함. ⁴⁷⁾	
	8월 9일- 洪良漢(浩)의 건의에 따라 8도 각 읍의 읍지를 올려 보내도록 함. ⁴⁸⁾	

46) 『承政院日記』, 영조 30년(1754년) 12월 3일(정미) 원본1114책/탈초본61책 (11/11) 기사. “上曰, 成川有邑誌乎? 命臣曰, 有之矣. 上曰, 平壤亦有之乎? 命臣曰, 平壤亦有誌, 故相臣尹斗壽開板矣. 上曰, 成川誌則明日得入, 其他邑誌, 問於弘文館得入.”

47) 『承政院日記』, 영조 33년(1757년) 6월 29일(기축) 원본1145책/탈초본63책 (11/13) 기사. “上曰, 各邑誌印出者, 前倅如有持來之件, 則後日持入, 可也.”

48) 『英祖實錄』 권90, 영조 33년(1757) 8월 9일(무진) 1번째 기사. “良漢曰: ‘臣於地圖事, 竊有所懷. 夫輿圖者, 有國之所重也, 我國《勝覽》之纂成, 已過數百年. 其後沿革, 更無所考, 不可不續成, 而此則姑難輕議. 至於列邑邑志, 即輿地之本, 挽近沿革, 可以考徵. 請自本館移文八道, 列邑之有志者, 無論謄本, 印本, 並收聚上送, 其無成書者, 即令修輯編成上

시기	관련 사료	
	중앙정부	지방
1757년	9월 4일- 英祖가 邑誌를 보고자 하니, 팔도에 印本 邑誌가 있다면 그 분량에 구애되지 말고 올리라고 명함. ⁴⁹⁾	일차미상- 聖上께서 邑誌(?)를 보고자 하여 弘文館에 명하여 관문을 내려 읍지를 편찬하여 올리게 하였으나, 당시 수령이 부재한 기간에 吏胥輩들의 태만함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뻔 하였음. ⁵⁰⁾
1758년	12월 23일- 영조가 海西의 읍지 유무를 물어보고 尹東席이 八道邑誌 新件이 홍문관에 있다고 알림. 각도의 읍지가운데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을 主書에게 배겨 올리도록 함. ⁵¹⁾	일차미상- 왕께서 列邑에 명하여 읍지를 올리라 함. ⁵²⁾
1759년	12월 23일- 金應淳이 英祖에게 각도 邑誌를 완성하였으나, 그 본문의 人物항목에 수록된 것이 난잡하여 各道에 명하여 다시금 수정하게 요청하여 왕이 윤허함. ⁵³⁾	일차미상(여름)- 금년(1759년) 여름에 왕께서 經筵의 신하들이 各道에 邑誌(?)를 新增하는 명령을 내리자는 건의에 따라 기록을 참고하여 읍지 1편을 제작함. ⁵⁴⁾

送,以備考據焉。”上曰:“所奏甚善。即宜舉行。” 이 내용은 동일 『承政院日記』에 더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 또한 8월 10일 『備邊司謄錄』에도 수록됨. 『太常謚狀錄』에 수록된 洪良浩의 행장에도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丁丑(1757) … (생략) … 秋以輿地勝覽撰成已過數百年,無以考徵沿革,請命八道方伯繕寫邑誌以進. 英宗可之,後至先朝命以邑誌續成勝覽而未及.”

49) 『承政院日記』, 영조 33년(1757년) 9월 4일(계사) 원본1148책/탈초본64책 (23/23) 기사. “上曰, 欲見邑誌, 八道中有印本, 則雖一二卷, 隨所得上之, 不必張大, 使之貽弊可也.”

50) 『新增興陽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奎 10804). “昨年冬我(영조 33, 1757년: 필자주), 聖上欲覽近古即, 今孝友忠貞之可采, 而不可泯者, 命弘文館發關列邑, 俾纂邑志以進, 而時值空官吏胥輩漫不舉行, 幾乎其後時不及之慮矣.”

51) 『承政院日記』, 영조 34년(1758년) 12월 23일(을해) 원본1163책/탈초본64책 (14/14) 기사. “上曰, 海西有邑誌乎? 東度曰, 八道邑誌新件, 來在弘文館矣. 上曰, 注書出去, 各邑來不來抄入. 又下教曰, 卿等亦退去, 諸臣退出, 初更三點矣. 少頃, 諸臣復入侍. 上曰, 俄間就寢, 咳氣少定矣, 以放尿少有起居節, 咳逆復作矣. 尙魯曰, 有進御乎? 上曰, 未也. 尙魯請診候. 上曰, 何必爲之? 東度曰, 各道邑誌來不來, 注書抄而持入矣.”

52) 『玉川郡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古 4790-24)跋文과 凡例(沃川郡은 현재淳昌郡을 말함).

跋文 - “惟我聖上臨御三十四年在歲戊寅(1758년: 필자주), 命下列邑修上邑誌, 而以繁冗退, 又令改纂, 於是刪正以進.”

凡例 - “一. 本邑邑誌, 有戊寅年所修整者, 而王府所上文字, 刪繁取要. 故不能纖悉盡記, 而今此一秩, 乃是本邑記實之文, 而事體殊別於輿地, 故不可不博采俱收細大不遺, 比諸本秩詳畧不同事.”

53) 『承政院日記』, 영조 35년(1759년) 12월 23일(기해) 원본1176책/탈초본65책 (11/11) 기사. “應淳曰, 各道邑誌纔已畢到, 而其中人物所載錄者, 甚多猥雜, 請令各道道臣, 更爲精覈, 俾無濫錄之弊, 何如? 上曰, 依爲之. 出舉條 諸臣以此退出.”

54) 『嶺誌要選三嘉新舊邑誌』, 李秀文의 三嘉邑誌序.

시기	관련 사료	
	중앙정부	지방
1760년		2월 16일- 黃胤錫이 邑誌를 수정하려 빨리 올리라는 명을 전해 듣고 弘文館의 關文을 통해 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일기에 기재함. ⁵⁵⁾
		2월 24일- 具尙德이 輿地勝覽을 수정하라는 下敕에 따라 수정사항을 적어 올림. ⁵⁶⁾
		3월 14일- 예산 현감이 새로운 읍지 작성을 위해 監營에 전인 현감이 작성한 1758년 읍지를 보내달라고 요청. ⁵⁷⁾
		4월- 예산 현감이 監營에서 받은 戊寅本(1758년) 초본을 받아 오탈자를 바로잡고 수정하여 검토를 요청하며 다시 監營에 올림. ⁵⁸⁾

“輿地勝覽之作其來尙矣。而蓋羅麗上下數千百載，事蹟之可傳者，猶有疎漏，無徵者存，識者恨之。今年(1759: 필자주) 夏我(英祖)聖上，仍筵臣建白，領新增之命於各道道臣守宰。不佞適守茲土，謹奉命遵行，搜輯邑中事實，參古證，今分類成秩合爲一篇。”

- 55) 黃胤錫, 『頤齋亂藁』, 1760년 2월 16일 일기.

“聞 有邑誌改正之報，馳入邑內宿紅箭門外。明日安正言戚叔，方以海西亞使自鄉來到，直入衙中，適聞余來，以主倅語使之入來。余乃入先問主倅起居，次問安叔起居，話間得見巡營關內所感弘文館關辭則，是乃再到者而，邑誌凡例目錄，逐一排定大槩，以爲前年所修邑誌，雖據肅廟己卯本草，而不無猥雜。今令道臣申飭改正其中人物條云，只載勝覽所載，及入書院建祠之人。其未登聞朝家者，不敢自下舉論孝子烈婦。亦以陳聞旌表者載錄，而未登聞者不能自下舉論云矣。旋與安叔出次，鄉廳與大川族兄道彥氏相話。主倅又出來，從客移晷而罷，適逢高君漢璧，得見叔祖筆跡即，肅廟己卯邑誌本草修正時，以高處士漏落事，通書于別有司李上舍，命徵金上舍鳴豪者也。”

- 56) 具尙德, 『勝聰明錄』, 1760년 2월 24일 일기.

“陰雲。是時有輿地勝覽改修正之敕，故定有司，收捧應入者，故自面內，修正本里事蹟時，畧曰，縣東十里有巨流山，一名流民山。(후략)”

- 57) 이영훈 편,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제 4책 (여강출판사, 1987). 첩보편4 『烏山牒報』 ‘庚辰三月十四日報巡營’.

“爲牒報事。因弘文館關據使關內，邑誌成冊到關即，爲修報事。關是置在亦，本縣上邑誌草件，使之取納則，該吏所告內，前仍使關，前縣監在任時修報，而同草件，其時色吏闕失而因爲作，故搜出處是乎矣，既無草本，則實難憑考刪增，茲以牒報爲去乎，營上件下送，以爲憑考修正事。行下爲只爲合行。”

- 58) 이영훈 편,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제 4책 (여강출판사, 1987). 첩보편4 『烏山牒報』 ‘庚辰四月日報巡營’.

“爲牒報事。節到付弘文館關據使關內乙用良，本縣邑誌，今始修正上使爲在果，此是草本。故多有落字狹書處，極爲未安，而其中稟定處則，以他紙付籤是乎拈，至於地圖，本縣元無畫工，無以模出。故地圖草本，亦爲上使，分付營門畫工。使之改模下送何如爲乎拈，前受

영조연간 전국지리지 『輿地圖書』의 서지적 연구

시기	관련 사료	
	중앙정부	지방
1760년		6월 21일- 예산현감이 1758년 戊寅本의 내용을 수정하여 완성된 읍지를 監營用, 弘文館用, 御覽用 세 종류로 만들며, 監營用을 먼저 올린다고 알림. ⁵⁹⁾
		1760년 가을(추정)- 李象辰(1710-1772)이 金正漢에게 보낸 편지로, 읍지 편찬하는 일로 관아에 갔다가 선배들의 이름이 수록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나, 이미 수령의 결재가 난 사항이라 바꿀 수 없었다는 글. ⁶⁰⁾
		1760년(추정)- 李象辰이 읍지를 제작하는 監營의 節目이 엄격하여 邑誌撰述都監을 사양한다는 글. ⁶¹⁾
		1760년(추정)- 李象辰이 本夫의 輿地勝覽을 修正하는 곳에 보낸 通文으로 누락된 인물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함. ⁶²⁾
1765년	12월 8일- 英祖가 弘文館에 명하여 輿地圖을 인쇄하여 올리게 하고 각 도의 읍지를 모아서 올리게 함. ⁶³⁾	
1775년		10월 1일- 黃胤錫이 기존의 지리지 제작에 대해 비판하면서 戊寅年(1758), 乙未年(1775)의 읍지가 실패로 돌아간 것을 기재하고 있음. ⁶⁴⁾
		10월 2일- 黃胤錫이 弘文館에서 내린 關文의 내용을 본 것으로, 장차 팔도읍지를 수집해서 승람의 속편을 만들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⁶⁵⁾

來營上本縣邑誌還上使緣由, 竝以牒報爲臥乎事合行.”

- 59) 이영훈 편,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제 4책 (여강출판사, 1987). 첩보편4 『烏山文牒』, 庚辰六月二十一日報巡營’.

“爲上使事. 本縣邑誌, 營上件上使爲乎旆, 御覽件段, 內外封裹, 入咸櫃子, 具鎖金是遣, 館上件竝以, 今月二十四日發送. 緣由牒報爲臥乎事合行.”

- 60) 李象辰, 『下枝集』 권3 ‘與金扶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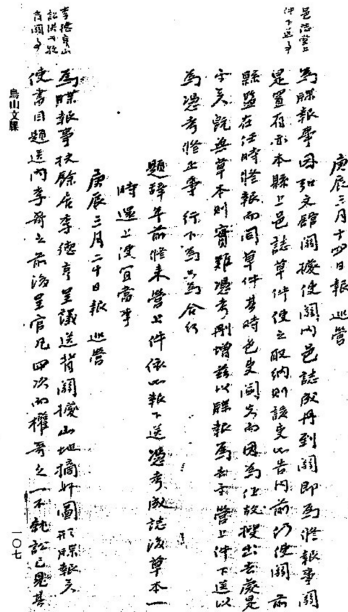
- 61) 李象辰, 『下枝集』 권4 ‘辭邑誌撰述都監文’.

- 62) 李象辰, 『下枝集』 권4 ‘通輿地勝覽修正所文’.

- 63) 『英祖實錄』 권106, 영조 41년(1765) 12월 8일(기유) 2번째 기사. “命弘文館, 印進《輿地圖》, 各道之有邑誌者, 竝命稟進.” 동일한 『承政院日記』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命膺曰, 最初洪良漢, 爲玉堂時陳達, 八道邑誌, 修正以上, 此則有印本有寫本矣. 其後金應淳, 爲玉堂時, 陳達改修正, 而李潑, 爲玉堂時, 行關於八道, 故臣於其時, 添冊國錄, 定爲凡例, 下送於行關時, 本館古例, 發關儒臣, 每以一件分兒, 故其輿地圖書二本上來, 一本內入, 一本分兒於李潑, 故臣得之矣. 上曰, 輿地圖書, 卿所名乎? 命膺曰, 然矣. 上命注書出問於弘文館, 輿地圖書一件在本館與否知入. 臣貞相奉命, 出問于弘文館, 則只有邑誌, 而輿地圖書, 則不在本館之由仰奏訖. 仍以次退出.”

- 64) 黃胤錫, 『頤齋亂藁』 1775년 10월 1일 일기.

“當戊寅(1758년: 필자주), 爰以申命中外, 將收錄不果 而及. 乙未(1775년: 필자주)亦然.



<그림 5> 사례: 1760년 3월 14일(영조 36) 鳥山牒報 韓警(1725-?)
(예산 현감이 새로운 읍지 작성을 위해 監營에 전임현감이 작성한 1758년 읍지를 보내달라고 요청)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배우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여지도서의 제작이 영조 연간에 3차례(1757년, 1759년, 1775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徐命膺이 소장하고 있다고 언급한 여지도서는 1759년에 수합된 전국지리지인 것으로 보이며,⁶⁶⁾ 정황상 이 책이 현재의 여지도서의 원형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정부측 기록으로 인용되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先是庚寅(1770년: 필자주)所編文獻備考, 亦已疎誤謬矣. 噫! 輿地之書, 前輩稱以地史者, 豈端然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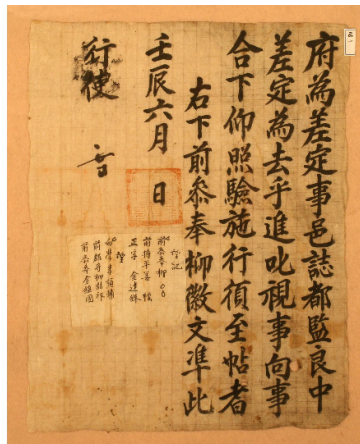
65) 黃胤錫, 『頤齋亂藁』 1775년 10월 2일 일기.

“得見弘文館啓下關子, 自本道本邑下來者則, 將輯八方邑誌以續勝覽, 而務令簡當. 本倅下帖於鄉校, 以溫弟及宋君復爲修正有司. 已慮鄉中紛亂, 使於新增中孝烈, 非登聞者不許入錄. 又將待中草完役, 乃要余總裁云.”

66) 배우성(1996), 157.

『備邊司謄錄』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전국단위의 지리지 제작에 대한 언급은 매우 소략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은 당시대에 지방에서 거주하였던 학자들의 기록들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黃胤錫, 具尙德, 李象辰 등의 기록에서 당시 지역 지식인들이 지리지제작에 참여나, 그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엿볼 수 있게 된다. 또한, 간접적으로 ‘邑誌上送令’이 내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후대 필사본 지리지와 지방에서의 편찬과정을 대변하고 있는 牒報자료들 역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李象辰의 문집에 있는 여지도서 제작에 대한 기록은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2차 여지도서 작성시기인 1760년일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이상진의 기록이 주목되는 것은 監營에서 내려온 명령이 郡縣으로 하달되게 되면, 지방 수령이 지방의 학자 혹은 향교, 서원에 이 일을 전담시키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黃胤錫도 이러한 都給구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사촌이 有司職을 사퇴하는 내용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이상진과 같이 자신이 邑誌撰述都監를 사퇴하는 연유에 대해 곡진하게 장문의 글로서 기록한 경우는 특기할 만하다 하겠다.



<그림 6> 사례: 1772년(영조 48) 柳徽文에게 보낸 帖
- 읍지도감 임명(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여지도서라는 하나의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리지를 실제로 제작하였던 지방의 관원은 또한 누구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무연간까지 남아있는 邑事例와 重記자료의 열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기는 다르지만 미국 버클리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1892년에 제작된 『京畿監營各房重記』에서는 邑誌를 禮房色이, 地圖는 戶房色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혹은 규장각에 소장된 1795(정조 19)의 『全羅道觀察使陵州雙鳳寺矯弊節目』을 살펴보면 완성된 전국지리지의 어람 용의 종이는 전라도 능주(현재 화순)의 雙鳳寺에서 지속적으로 납품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등, 세부적인 복합요인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실에 접근할지는 알 수 없으나, 해석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조 말년에 진행된 1775년의 전국지리지 작업은 결국 다음 해에 왕이 崩御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으로 즉위하는 正祖가 1789년에 『海東輿地通載』의 제작을 명하면서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정조연간의 지리지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趙鐵宅이 영조연간부터 黃胤錫과 지리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書簡을 통해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조연간의 지리지는 영조연간에 제작된 여지도서의 단점이 보완되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영조연간에 제작되었던 전국지리지인 여지도서는 하지만 바로 후대의 지식인들에게도 잊혀진 지리지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洪羲祖의 『杞人間商量』을 살펴보면, 조선의 역대 지리지 제작에서 英祖연간의 지리지 제작은 申景濬이 작성한 『東國文獻備考』의 『輿地考』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英祖가 작성하고자 하였던 『海東輿地通載』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록이 상세한 편이다. 이렇게 후대 지식인들에게 영조연간의 지리로나 정조연간의 지리지가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들이 刊行이 되어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조선에서 간행된 유일한 전국지리지는 승람뿐이었으며, 高宗연간에도 조정에서는 지방의 일을 처리할 때 승람을

근거로 이용하는 모습이 자주 확인되고 있는 있다.

정조연간에 제작되는 지리지를 전후하여 등장하는 지역의 ‘읍사례’ 역시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지역마다 각기 상이한 내규로 발달되었던 읍사례는 필자가 연구한 1830년대 홍희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통일안을 작성하여 전국지리지에 수록할 것이 건의되고 있다.

“지금 지리지 찬수를 행하는 데에 ‘事例’를 수정하는 것을 겸하여 무릇 한 읍에서 위로는 公納에서 그 아래로는 세금, 그리고 말단으로는 아전의 잡비까지 부족하나마 그 연유를 망라해서 수록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여 한 부의 책자를 만들고, 감영으로 거두어 모아서 監營의 사례를 합하여 ‘道摠’을 만든다. 또한 팔도의 ‘摠’을 수합하여 廟堂에 올려서 ‘都摠’을 만들어 때에 따라 상고하게 하면, 장막 안에 앉아서도 천리를 손바닥 보듯 하지 않겠는가!”⁶⁷⁾

향후 여지도서의 제작경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리지 제작을 발의하였던 洪良漢(洪良浩)에 대한 이해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肅宗, 英祖 연간의 전국지리지 제작에는 독특한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일차적인 의견의 개진을 신하측에서 먼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숙종연간의 지리지 제작에는 金錫胄, 崔錫鼎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조연간의 지리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양호의 발의에 의해 진행되어 이후 金應淳, 李潑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사이에는 徐命膺, 申景濬과 같은 이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學風가운데 지리지에 대한 연구와 편찬을 진행했던 인물들의 계보에 대해서는 양보경의 연구에 의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⁶⁸⁾ 하지만 이는 16-17세기에 걸친 남부, 중부지방의 인물에 대한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이 이후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67) 『杞人間商量』 37면.

“今於修誌之行, 兼修事例, 凡一邑之上而貢納下, 而賦歛末至情費, 聊賴之, 由莫不收羅載錄, 作爲一部冊子, 收聚監營, 合與監營之事例, 作爲道摠, 亦收八道之摠, 上之 廟堂, 作爲都摠, 以時攷按則, 坐帷幄而見千里不如視諸掌乎!”

68) 양보경(1987), 70-74.

4. 맺음말

본래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와 원본을 열람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원본실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부족하나마 기존부터 가져왔던 여지도서의 서지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자료의 외적인 부분과 본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기존까지 제시되어 온 ‘李滉->徐命膺->뫼텔주교->한국교회사연구소’라는 설명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약술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료의 본문에 대한 분석으로서, 弘文館에서 關文이 하달될 당시에 정해져 있던 目次에서 경상도 지역이 차이나고 있음과 그 원인에 대해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제작경위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연구성과와 새롭게 문집자료에서 확인된 몇몇 사료를 추가하여, 여지도서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1757년, 1759년, 1775년경의 중앙정부와 지방에서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넘어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였으나, 앞선 두 항목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를 한 점을 작은 의의로 두고자 한다. 제작경위의 말미에서도 밝힌 것처럼, 향후 여지도서의 제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제작을 발의한 洪良浩와 주변 인물들의 지리지에 대한 인식과 사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지속적으로 열람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조선시대 古文書와 日記類, 疏筭啓狀類 및 해외 소장 전적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밝혀줄 자료가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현재 열람을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한국교회사연구소 측에서 여지도서 원본의 칼라 이미지가 조속히 전산화되어 일반 대중과 학자들에게 공개된다면, 자료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李朝의 邑誌 韓눈에 輿地圖書55冊 全帙발견.” 1973년 3월 22일자 1면.

경향신문. “李朝 地方行政史 등 集大成된 資料.” 1973년 3월 23일자 4면.

具尙德. 『勝聰明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金山郡邑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想白古 915.15-G336).

동아일보. “李朝邑誌총정리 당시國勢 韓눈에 輿地圖書전집55책 發見.” 1973년 3월 22일자 7면.

『承政院日記』.

『新增興陽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奎 10804).

『英祖實錄』.

『嶺誌要選三嘉新舊邑誌』.

『玉川郡誌』.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청구기호: 古 4790-24).

李象辰, 『下枝集』.

洪義祖. 『杞人間商量』.

黃胤錫. 『頤齋亂藁』.

2. 논문 및 단행본

Joseph Dennis. *Writing, Publishing, and Reading Local Gazetteers in Imperial China, 1100-1700* (Havard East Asian Monographs 379).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5.

Maurice Courant. *Supplément À la Bibliographie Coréenne*. Jusqu'en, 1899.

W. Massy Royds. *Introduction to Courant's Bibliographie coréenne*. Transactions of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XXV, 1936.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3.

- 국사편찬위원회 편. 『輿地圖書 上, 下』. 국사편찬위원회, 1979.
- 김수경 역. 『朝鮮文化史序說』. 서울: 凡章閣, 1946.
- 김전배. 『朝鮮朝의 邑誌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 1972.
- 김진우. “여지도서 유형의 읍지를 통한 해미읍성의 문헌적 고찰 - 성곽과 성곽 부대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포럼』 9(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1).
- 김태웅. “近代改革期 全國地理誌의 基調와 特徵.” 『규장각』 43(2013).
- 노희방. “여지도서에 게재된 읍지도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980).
- 뤼시앵 페브르, 앙리 장 마르탱 저, 강주현 외 1명 역. 『책의 탄생(책은 어떻게 지식의 혁명과 사상의 전파를 이끌었는가)』. 파주: 돌베개, 2014.
- 모리스 꾸랑 원저 이희재 번역. 『韓國書誌』. 일조각, 1994.
- 뮈텔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 주교 일기』.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 박상규 역. 『韓國의 書誌와 文化』. 親丘文化社, 1974.
- 배우성. “영조조 군현지도집의 편찬과 활용.” 『한국학보』 81집(1995).
- 배우성. “18세기 전국지리지 편찬과 지리지 인식의 변화.” 『한국학보』 85집(1996).
- 변주승.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한국사학보』 25(고려사학회, 2006).
- 변주승 등 역주. 『국역 여지도서 1-50』. 서울: 디자인흐름, 2009.
- 小倉親雄 譯. “朝鮮書誌序論.” 『讀書』 2, 3號(1938).
- 양보경.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7.
- 양보경. “18세기 조선의 자화상 『여지도서』.”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연구』 5·6월 호(1993).
- 양윤정. “18세기 『여지도서』 편찬과 군현지도의 발달.” 『규장각』 43(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 양진석. “18세기말 전국 지리지 『해동여지통재(海東輿地通載)』의 추적.” 『규장각』 43(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 이영훈 편. 『한국지방사자료총서』 제4책(첨보편4). 여강출판사, 1987.

정대영. “1899년 全國邑誌上送令과 읍지편찬 연구.” 『서지학보』 38(2011).

정대영.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韓國書誌』 Bibliographie Coreénne
에서 나타나는 고지도 자료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3권 1호(2011).

정대영. “『杞人間商量』 - 19세기 초 洪義祖가 바라본 조선의 지리지 제작.” 『한국
문화』 72(2015).

淺見倫太郎 譯. 『朝鮮藝文志』. 朝鮮總督府, 1912.

